



AI PERSONAL FINANCIAL ROBOADVISOR

## 주간투자전략 (4/13~4/17)

### "휴전 결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 공포에 팔지 말고 '압축'된 주도주에 올라타라"

- 휴전 합의 기대에서 협상 결렬 이후의 재평가 국면으로의 전환
- 지정학 변수는 상단을 누르고, 실적 상향은 하단을 받치는 구조
- 반도체 중심 코어 유지, 유가 민감 변수 점검, 놀림목 분할매수
- 반도체, IT 하드웨어, 전력 인프라, 선택적 바이오, 물류·유통 섹터 유망

금주 불안정한 휴지기  
선별 대응이 중요

#### 휴전 합의 기대에서 협상 결렬 이후의 재평가 국면으로 전환

이번 주(4/13~4/17) 증시의 핵심 주제는 "휴전 합의 기대에서 협상 결렬 이후의 재평가 국면으로의 전환"이다. 미국과 이란의 4월 11일 협상은 최종 합의 없이 종료됐고, 시장은 이제 단순한 전쟁 완화 기대보다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가능성, 유가의 재안정 속도,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을 시작으로 한 반도체 이익 상향 지속성을 더 중시하는 구간으로 이동했다. 핵심은 지정학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 전면 재충돌 위험과 제한적 재협상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불안정한 휴지기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주 증시는 낙관 일변도보다는 실적과 매크로에 기반한 선별 대응이 더 중요해진다.

지정학 변수는 상단 누르고  
실적 상향은 하단 받치는 구조

#### 주요 증시 이슈 및 이벤트 정리

첫째, 미국-이란 협상 결렬 이후에도 파키스탄과 주변국의 중재가 이어지며 휴전 연장 또는 2차 협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둘째,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핵 프로그램 관련 입장차가 여전히 커 유가와 물가 기대를 다시 흔들 수 있다. 셋째, 국내 증시는 이제 외부 지정학 뉴스보다 삼성전자 실적 이후의 반도체 이익 상향, 미국 3월 PPI, 베이지북, 금융주 실적 등 숫자로 확인되는 재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즉 이번 주는 **지정학 변수는 상단을 누르고, 실적 상향은 하단을 받치는 구조**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실적 상향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압축

#### 금주는 어떤 투자전략과 스탠스로 대응해야 하는가

투자전략은 공격적인 추격매수보다 **반도체 중심 코어 유지, 유가 민감 변수 점검, 놀림목 분할매수**다. 협상 결렬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부담이지만, 휴전이 즉시 붕괴됐다고 단정할 단계도 아니다. 따라서 지금은 시장 전체를 강하게 비관할 시점이 아니라, 지정학 뉴스로 변동성이 확대될 때마다, 실적 상향이 확인되는 종목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특히 유가와 달러에 취약한 고밸류 성장주는 진입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IT 하드웨어, 전력 인프라  
선택적 바이오, 물류, 유통

#### 투자 유망 섹터 및 관심 종목

이번 주 유망 섹터는 반도체, IT 하드웨어, 전력 인프라, 선택적 바이오, 물류·유통이다. 관심 종목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KB 금융, LX 인터내셔널, 현대로템, 현대글로비스, CJ 대한통운, 현대백화점, 리가캠바이오, 파마리서치다. 이들 종목은 공통적으로 실적 상향 또는 구조적 수요, 혹은 개별 사업 모멘텀이 비교적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 [금주 5대 핵심 관전 포인트 등]

금주 KOSPI  
5,650 ~ 6,050 pt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는 **5,650 ~ 6,050 포인트**로 조정 제시한다. 협상 결렬로 인해 지난주 기대했던 '안도 랠리'의 속도는 다소 조절되었으나, 휴전 연장 가능성 및 2차 협상 기대감이 하단을 지지하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주 주요 이슈로는 **첫째, 미국-이란 협상 결렬과 휴전 연장론 및 2차 협상 가능성의**

**충돌:**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 동결 자금 문제로 협상은 멈췄으나, 양측이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은 급락보다는 경계감 속 관망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유가 및 환율의 하방 경직성 강화:** 협상 결렬 소식은 유가와 환율의 하락세를 저지하는 요인이다. 이는 비용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내수주에게는 악재이나, 정유 및 자원 상사주에게는 단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셋째, 삼성전자 서프라이즈 이후의 수급 쏠림:** 지수가 매크로 노이즈로 묶여 있을 때, 외국인은 결국 실적이 확인된 반도체 대형주로 수급을 더욱 집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넷째, 미국 금리 인하 기대의 실종과 '실적'의 무게:** 3월 CPI 쇼크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가 9월 이후로 밀린 상황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한 현재 국면에서, 시장의 핵심 동력은 매크로 지표보다 기업의 이익 성장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다섯째, 밸류업 프로그램의 종목별 차별화:** 실적 발표 시즌과 맞물려 실질적인 주주환원 여력이 있는 금융, 유통, 상사 섹터 내 가치주들이 지수 하락 시 방어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 [주간 상승, 하락, 변수 요인]

## 상승 요인

- 압도적인 반도체 이익 수정치:** 최근 반도체 업종의 이익 전망치는 1주일 새 +27.7% 상향되었다. 이는 지정학적 악재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펀더멘털이다.
- 2차 협상에 대한 '기대감'의 존속:** 해외 언론사 보도처럼 휴전 연장 및 2차 협상 가능성 등이 열려 있다는 점은 시장이 최악의 시나리오(전면전 재개)를 가정하지 않게 만드는 안전판이다.
- 수출 데이터의 견조함:** 환율 상승이 부담스럽지만,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의 물량 증가세가 확인되고 있어 이익의 질은 나쁘지 않다.

## 하락 요인

- 협상 결렬에 따른 심리적 허탈감:** 안도 랠리를 기대했던 매수세가 위축되며 거래량이 감소하고, 작은 악재에도 지수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리 멘탈'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
- 고유가·고환율의 장기화 우려:** 협상이 길어질수록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며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률(OPM)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성장주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금리 환경:** 미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AI 테마 및 바이오 섹터의 상단을 제약할 수 있다.

## 변수 요인

- 미국 물가와 금리 이벤트 해석:** 이번 주 PPI와 베이지북은 연준 기대 경로를 흔들 수 있다. 시장이 금리 인하 쪽으로 재해석하면 성장주가, 반대로 매파적으로 읽히면 금융·에너지·방어주가 상대 강해질 수 있다.
- 달러와 기대 인플레이션 조합 변화:** 달러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동반 상승하면 은행·방산·지주가, 동반 하락하면 기계·증권·하드웨어·바이오가 상대 우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는 이러한 매크로 조합을 확인하는 주간이다.

[금주 투자 유망 섹터]

가장 우선하는 투자 유망 섹터는 **반도체**다. 이익 수정치가 가장 강하고 삼성전자 실적이 업황 방향을 확인시켜줬으며, SK 하이닉스 역시 높은 이익 전망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주 시장의 중심축은 여전히 반도체이며 지수 방향도 이 업종의 이익 상황 지속 여부에 달려 있다.

두 번째는 **IT 하드웨어와 전력 인프라**다. 삼성전자, LG 이노텍, RFHIC, LS ELECTRIC 등은 실적 상황과 구조적 수요가 동시에 확인되는 구간이다. 특히 전력 인프라와 고부가 부품 중심의 성장 흐름이 핵심이다.

세 번째는 **증권과 금융**이다. 이익 상황 흐름이 확산되는 가운데 KB 금융, 키움증권 등은 주주환원과 실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방어적 역할을 수행하는 축이다. 공격적 주도주보다는 안정적 수익 기반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네 번째는 **바이오와 미용의료**다. 업종 전체보다는 종목 선택이 중요하며, 리가캠바이오는 이벤트형, 파마리서치는 실적형으로 구분해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다섯 번째는 **소비·물류**다. 현대백화점, CJ 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는 각각 본업 성장과 물동량 증가, 운임 수혜를 기반으로 실적 방어력이 높은 종목군이다. 이들 종목은 단순 경기민감주보다는, 실적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물류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주요 관심 종목 및 포인트]

- 관심 종목

**현대글로비스 (086280):** 물류망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그룹사 물량 기반의 안정적 실적과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가치 재평가 기대.

**리가캠바이오 (141080):** 협상 결렬로 인한 성장주 약세 시 놀림목 매수 기회. ADC 기술 수출이라는 확실한 '숫자'가 대기 중.

**파마리서치 (214450):** 매크로 변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에스테틱 대표주. 수출 증가를 통한 압도적 이익률 유지.

**CJ 대한통운 (000120):** 고유가 상황에서도 운임 전가 능력이 확인된 물류 대장주. 이커머스 성장에 따른 택배 물량 견조.

**현대백화점 (069960):** 지수 변동성 구간에서 하방이 막힌 저 PBR 종목. 주주환원 강화와 면세 실적 개선 기대.

**삼성전자 (005930):** 협상 결렬 노이즈를 뚫고 갈 유일한 대안. 메모리 가격 상승과 AI 수요가 실적을 담보.

**SK 하이닉스 (000660):** HBM 시장의 지배적 지위. 지수 조정 시 외국인인 가장 먼저 다시 담을 실적 1 순위주.

**KB 금융 (105560):** 고금리 장기화의 직접적 수혜와 밸류업 정책의 상징성. 배당 매력 부각되는 시점.

**LX 인터내셔널 (001120):** 자원 가격 상승과 환율 수혜를 동시에 입는 지정학 리스크 헤지용 종목.

**현대로템 (064350):** 협상 결렬로 안보 위기감이 지속될 때 수주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실전형 방산주.

[금주 주요 글로벌 경제 발표 일정]

이번 주 글로벌 및 미국 경제 데이터는 “저성장 + 인플레이션 재상승”이라는 다소 불편한 조합을 다시 확인시켜줄 한 주가 될 전망이다.

[표 1] 금주 주요 글로벌 경제 데이터 발표 일정 등

| 일자     | 이벤트              | 예측    | 이전    | 시사점                              |
|--------|------------------|-------|-------|----------------------------------|
| 4/13 월 | 기존주택판매 (3월)      | 4.07M | 4.09M |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며 금리 부담이 지속         |
| 4/14 화 | 생산자물가지수 MoM (3월) | 1.2%  | 0.7%  | 기업단 가격 압력이 급등하며 인플레 재가속 우려       |
| 4/16 목 | 중국 GDP YoY (1분기) | 4.8%  | 4.5%  | 예상보다 강한 중국 성장률은 글로벌 경기민감 심리에 우호적 |
|        |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 (4월) | 10.5  | 18.1  | 제조업은 확장 구간이지만 속도 둔화가 뚜렷          |
|        | 신규 실업수당청구        | 215K  | 219K  | 고용은 완만한 냉각 국면이지만 아직 침체 신호는 아님    |

자료: 인베스트닷컴, 핀릿 리서치센터

미국 3 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월 대비 1.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기업 단계의 가격 압력이 빠르게 확대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3 월 소비자물가(CPI) 급등과 함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 아닌 재가속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성장 지표는 강하지 않다. 기존주택판매는 4.07M 으로 소폭 둔화되었고,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는 10.5 로 여전히 확장 구간이지만 직전 대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 경제가 **침체는 아니지만 성장 탄력이 약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고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는 215K 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아직 노동시장 붕괴 신호는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중국 1 분기 GDP 는 4.8%로 예상치를 상회하며 글로벌 경기에는 긍정적 신호를 제공했으나, 동시에 원자재 수요 및 가격 상승 가능성을 통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번주 금융시장은 **채권 자산이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운 구간**으로 판단한다. 성장 둔화만 놓고 보면 금리 하락 압력이 자연스럽지만, 최근 **CPI와 PPI 재가속**이 이를 막고 있다. 따라서 장기금리 하락에 크게 베팅하기보다는 **중·단기물 중심의 보수적 듀레이션 관리**가 더 적절하다.

주식시장은 **지수 방향보다 업종 차별화**가 중요하다. 중국 경기 서프라이즈와 미국 제조업 확장은 산업재·소재 등 일부 경기민감주에 우호적일 수 있다. 반면 미국 주택 정체, 물가 재상승, 미국-이란 협상 결렬 등은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와 소비주에 부담이다.

전략적으로는 **중·단기 채권 유지, 주식은 퀄리티와 가격전가력 높은 업종 중심, 경기민감주는 선택적 접근**이 합리적이다.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변수 모두 커져 있어 **과도한 방향성 베팅은 피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금주 주요 글로벌 기업 실적 발표 일정]

이번 주 실적 시즌은 금융주가 시즌의 문을 열고, ASML(ASML), 넷플릭스(NFLX), 펍시코(PEP), 존슨앤드존슨(JNJ), 프로로지스(PLD) 등이 그 뒤를 잇는 구조이다. 따라서 시장은 이번 주 실적을 통해 금융 시스템의 이익 체력, AI·반도체 설비 투자 지속성, 미국 소비와 방어적 소비재의 가격 전가력, 헬스케어와 물류 부동산의 안정성을 함께 점검하게 된다.

[표 2] 금주 주요 글로벌 실적 발표 기업 및 관전 포인트 등

| 일자      | 종목                                                                                                 |
|---------|----------------------------------------------------------------------------------------------------|
| 4/13(월) | 골드만삭스(GS), 패스널(FAST)                                                                               |
| 4/14(화) | JP모건(JPM), 존슨앤드존슨(JNJ), 웰스파고(WFC), 씨티그룹(C), 블랙록(BLK)                                               |
| 4/15(수) | ASML(ASML), 뱅크오브아메리카(BAC), 모건스탠리(MS), 프로그레시브(PGR), PNC파이낸셜(PNC)                                    |
| 4/16(목) | 넷플릭스(NFLX), 펍시코(PEP), 애보트래버러토리스(ABT), 찰스슈왑(SCHW), 프로로지스(PLD), 뉴욕멜론은행(BK), 마쉬앤맥레년(MRSH), 트래블러스(TRV) |
| 4/17(금) | 트루이스트(TFC)                                                                                         |

자료: 인베스트닷컴, 핀릿 리서치센터

**실적 장세 본격 시작** 이번 주 실적의 가장 큰 중심축은 금융주이다. 이번 분기 미국 대형 은행들은 순이자이익과 투자은행(IB) 수수료 개선으로 이익 증가가 예상되지만, 동시에 이란 관련 지정학 리스크와 유가 상승이 대출 성장과 물가 경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JP 모건(JPM), 골드만삭스(GS), 뱅크오브아메리카(BAC), 씨티그룹(C), 웰스파고(WFC), 모건스탠리(MS), 블랙록(BLK), 찰스슈왑(SCHW)의 핵심은 단순 실적 숫자보다도 가이던스와 향후 경기 판단이 핵심이다.

비금융 쪽에서는 ASML(ASML)이 가장 중요하다. ASML 은 AI 칩 수요에 힘입어 2026 년 매출 가이던스를 340 억~390 억 유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실적에서 그 기대를 유지하면 AI 인프라 밸류체인 전반의 신뢰가 강화될 수 있으나, 반대로 수주·백로그·가이던스가 흔들리면 반도체 장비 전반의 멀티플 부담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

소비·방어주 측면에서는 넷플릭스(NFLX), 펍시코(PEP), 존슨앤드존슨(JNJ), 애보트래버러토리스(ABT)의 실적이 중요하다. 넷플릭스는 가입자보다 가격 인상 이후 수익화와 광고 성장, 펍시코는 가격 인하 이후 볼륨과 마진 균형, JNJ 는 안정적 가이던스 유지 여부, 애보트는 영양·진단 부문 회복 여부가 핵심이다.

종합하면 이번 주는 금융주가 경기의 온도를 말하고, ASML 이 AI 투자 사이클의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며, 넷플릭스·펍시코·JNJ 가 소비와 방어주의 질을 확인시켜 주는 주간이다. 실적 숫자보다도 “향후 2~3 분기를 어떻게 보는가”가 시장 주가 반응을 더 크게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 핀릿 리서치센터



## Analyst 김영진

現 독립리서치 핀릿 대표 &amp; 연구위원

금융투자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헤지펀드 운용전문인력

부동산투자 자산운용사

매경, 한경 등 주요 언론사 Best Analyst 출신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서치/자산배분 본부장

하이자산운용 헤지펀드 운용실장

K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대행

NH 투자증권 / LG 투자증권 /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등 역임

##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는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자료 작성자 김영진은 자료 제공일 현재 이 자료에 언급된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선행매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합니다.
- 이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투자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사는 이 자료를 전문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는 당사 저작물로서 모든 지식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이 자료를 당사 임직원 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고지사항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